



행복한 엄마, 행복한 여성

박진희/육아잡지 기자

세 상의 반은 여자고, 그 반은 엄마다.
 — 엄마, 어머니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다.

21세기가 되었고, 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해주려 하는 것은 모습만 다를 뿐, 예전의 어머니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하얗게 질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유를 먹이는 고생을 자청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태교부터 영어로 하고, 날마다 잠만 나면 좋은 육아 정보를 얻어 아이를 잘 키우려 하는 우리 엄마들.

난 여성이고, 물론 엄마가 될 계획이지만 아직 내 앞에 닥친 이십대 후반 미혼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도 급급한 터라 이런 엄마들을 보면 경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요즘 엄마들을 보면 '더 빨리, 더 많이'가 육아 모토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어, 한글, 수학, 예체능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한 달에 만만찮은 돈을 아이 학원비에 쏟아붓기도 하고,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엄마들은 더듬더듬 잘 떠오르지 않는 옛 기억들을 더듬어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 뒤늦은 공부를 하



기도 한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 당연하다. 엄마들은 의무감과 의욕에 불타오른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럼, 엄마들의 권리는 뭘까? 건강한 아이, 바른 아이, 똑똑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엄마들의 의무라 한다면 엄마들의 권리는? 그건 내 권리기도 한데? 한참을 생각해 본다.

엄마의 '권리' 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다가온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엄마에게 모성애라는 틀을 씌우고 의무만 강요했다는 뜻일 것이다.

엄마들의 권리는 아마 행복한 육아, 행복한 삶이다. 다른 아이, 다른 엄마들과 비교당하면서 쫓기지 않으며, 자기가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믿으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떳떳하고 편안하게 모유를 먹일 수 있으며, 결혼하고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가끔은 나만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엄마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엄마로 살기란 아직도 험난하기만 한 것 같다. 난 엄마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엄마의 의무다.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의 몫이 아닐까. **PPFK**